

# 크레이그 키너 박사, 사도행전, 강의 18, 사도행전 17장

© 2024 크레이그 키너와 테드 힐데브란트

이것은 사도행전을 가르칠 때 Dr. Craig Keener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8회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적대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빌립보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곳에서도 교회를 떠났습니다.

글쎄요, 상황이 나아지길 바라지만 아직은 그렇지 않습니다. 베뢰아에서의 반응은 처음에는 더 긍정적이었습니다(10절부터 15절). 17:1에서 그들이 여행하던 이그나티아 가도는 서쪽으로 계속되었지만 바울은 대신에 베뢰아를 통과하여 그리스, 아가야로 향하는 남쪽 길을 택했습니다.

베뢰아는 데살로니가와 이그나티아 가도에서 서쪽으로 60마일 떨어진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을 박해하려는 사람들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를 찾으러 갔다면 아마도 Via Ignatia에서 그를 찾으러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항상 이 길을 따라 여행했기 때문에 소문은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퍼졌습니다.

고전 17:11, 유대교에서는 모든 것을 성경과 대조하고 선한 스승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는 자를 귀히 여기느니라. 물론 우리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스 철학자들도 진리를 주의 깊게 듣는 사람들을 칭찬했습니다.

베뢰아 회당에서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그리스어로 번역된 토라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며, 아마도 선지자들의 두루마리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쉽게 구할 수 없었어요.

아마도 모든 회당에 그런 것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필로와 요세푸스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에서 수집할 수 있다면 비록 이것들을 직접 복사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17장 12절에는 여자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있는데, 이는 17장 4절에서처럼 누가의 관심에 부합합니다. 17:13, 데살로니가인들은 베뢰아에 법적 관할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카 유대인들은 바울이 베뢰아 회당에서 설교한다는 말을 듣고 여기까지 와서 베뢰아에서도 그를 괴롭게 합니다. 그들에게는 법적 관할권이 없었습니다.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법적 관할권은 없습니다. 그들은 데살로니가에서 법령을 가져올 수 없었지만 폭도들은 합법적으로 활동하지 않습니다. 잘,

17:14-15, 사자들은 혼자 여행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여행자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 안전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안전을 위해 그를 보낼 때 동행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뒤에 남겨 둘 수 있었지만 바울이 주요 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요약합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3:1에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조화시키는 방법이 있지만 Luke는 모든 세부 사항을 제공하는 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루크는 단지 요약하고 있을 뿐입니다. 바울은 결국 상당히 남쪽에 있는 아테네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마케도니아 밖에서는 그는 그다지 큰 문제에 직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남쪽까지 그를 따라갈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것은 완전히 그들의 지방 밖입니다.

아테네에는 두 개의 항구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피레우스에 들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다른 항구로 들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이 항구 중 한 곳에서는 곳을 돌 때 아크로폴리스 꼭대기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미 바다에서 오고 있는 아테나의 창 끝을 볼 수 있었다. 그는 또한 그가 들어오면서 바로 항구에 있는 알려지지 않은 신의 제단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신들의 제단이 많이 있었습니다. 파우사니아스(Pausanias)를 읽어보시면 파우사니아스는 2세기 그리스 지리학자였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모든 동상과 도시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줍니다. 물론, 바울 시대 이후에 지어진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아테네 시장에서 무엇을 볼 수 있었는지, 그리고 바울이 아크로폴리스에 갔을 때 정확히 무엇을 볼 수 있었는지 알고 싶다면, 아크로폴리스에 가면 어디를 가든지 동상이 있었습니다. 돌아서는 곳마다 사원이 있었다. 그러므로 바울의 영이 그 안에서 감동되었을 때, 제 말은 여기서 아테네는 위대한 철학으로 명성을 얻었지만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이 신들을 숭배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테네와 같은 지식인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이러한 우상 숭배로 인해 내부적으로 매우 감동받았습니다. 나는 아마도 말한다. 이방인들은 그것이 지적인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들 중 일부는 그랬지만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너무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왜 사람이 만든 무생물을 숭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의 영이 그 안에서 감동됩니다. Pausanias를 읽으면 Corinth 등에 대한 모든 종류의 세부 정보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원한다면 Pausanias를 읽어보세요. 2차 자료를 읽을 수 있지만 현재 이용 가능한 고고학적 증거를 제공하지 않는 한 Pausanias에서 대부분을 가져갈 것입니다. 철학.

로마 시대의 철학자들은 우리가 철학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윤리에 더 중점을 두었습니다. 종교는 철학만큼 윤리를 많이 다루지 않았습니다. 종교는 주로 의식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철학자들이 실제로 비종교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에피쿠로스 학파처럼 종교의식에 있어서 비종교적이었지만, 많은

철학자들은 대중이 하면 된다고 말하면서도 신을 미신적이라고 폄하했습니다. 어쨌든 그들 대부분은 무신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그랬지만 그들은 신들이 인간 존재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피쿠로스학파가 믿었던 것이며, 진짜 신은 태양, 달 등과 같은 존재들일 뿐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종종 무신론자로 간주되었지만 기술적으로는 무신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신론자에 더 가깝지만 사람들은 그들을 무신론자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신을 미신으로 여기고 미신을 숭배했지만, 사람들을 그들의 견해로 개종시키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지 그들의 견해일 뿐이며 그들은 이것이 대중에게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종류의 종교를 가지면 그들을 일치하게 유지합니다. 플라톤조차도 종교는 사람들을 선으로 유지한다고 말했습니다. 플라톤은 개인 예배를 근절하고 싶었지만 국가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이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철학자들은 종교를 미신이라고 공격했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대중적인 철학 형태였던 스토아 학파는 종교를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대중적인 의식을 행하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의 존재를 옹호하기도 했다.

로마인들은 항상 철학자를 신뢰하지는 않았지만 특히 초기에는 그랬습니다. 수사학과 철학 사이에도 지속적인 전쟁이 있었지만, 그것은 주로 초기에 있었고 이 시점에서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철학은 아테네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테네는 고대부터 유명했고 지금도 여전히 대도시에 대한 강의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영광은 사라졌다. 그것은 위대한 철학자들로 명성이 높았습니다.

결국 소크라테스는 그곳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실질적인 철학교육 측면에서는 역시 대학 중심지인 알렉산드리아와 타르수스에 뒤쳐져 있었다. 당신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엘리트 평판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학교도 있지만 덜 엘리트 평판을 갖고 있는 다른 학교도 있지만 교육의 질은 상당히 좋습니다. 어쨌든 알렉산드리아와 타르수스는 이미 대학 중심지로서 아테네를 능가했습니다. 데살로니가와 마찬가지로 아테네도 자유 도시였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아테네에서 설교한 적이 없다고 말하기 때문에 이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는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아테네에 있었다고 언급하므로 누구도 이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한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서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누군가를 아가야 지방의 첫 열매로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린도가 수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아테네는 아가야 지방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개종자가 아테네에 없었다면, 바울이 아테네에서 설교했더라도 사도행전 17:34에서 볼 수 있듯이 그는 어떤 개종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 주장에 불행하게도 아테네는 자유 도시였습니다. 따라서 지리적으로는 아가야의 일부였지만 기술적으로는 아가야 속주의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다른 사람의 아가야의 첫 열매에 대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최초의 개종자들에 대해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더라도 아테네의 개종자들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주장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테네가 몇 세기 동안 자유 도시였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철학자들과의 랍비 논쟁은 랍비 문헌에 자주 등장하는데, 이는 종종 우리 랍비가 너무 똑똑해서 철학자를 이길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문학적 기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서사의 기능도 비슷할지 모르지만, 전설에 기초하거나 꾸며낸 초라한 정보는 아니다. 이것은 바울의 여행 동반자가 쓴 고대 역사서에 나오는 것으로, 그 시대의 한 세대 내에 일어난 일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설은 계산 방식에 따라 사도행전의 약 4분의 1을 차지할 수 있으며, 흔히 신앙을 변호하는 변증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여기의 경우입니다. 변증학과 철학. 그리스-로마 세계의 유대인 변증가들은 이미 그리스 철학의 가장 유용한 공헌을 약탈했으며 수세기 동안 이런 일을 해왔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철학자들이 모세를 표절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사실일 가능성이 별로 없지만 저스틴과 같은 기독교 변증가들은 그것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일부 그리스인들은 또한 피타고라스와 같은 일부 철학자들이 유대교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헬레니즘 유대인들은 종종 아브라함을 철학자로 묘사했습니다.

그는 Philo와 4th Maccabees 및 기독교 이전의 Aristeas 서신에서 그런 식으로 묘사되었습니다. 따라서 많은 유대인 변증론은 특히 이 시기의 스토아 철학과 관련된 철학과 상호작용했지만, 알렉산드리아에서는 플라톤 철학이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Paul은 이미 이것에 대해 어느 정도 훈련을 받았을 수 있으며, Paul은 확실히 그 과정에서 이 중 일부를 선택하고 활용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때때로 그는 철학자들이 이것을 모세에게서 훔쳤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중복되는 부분을 기꺼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가끔 너무 짜증이 나서 어떤 사람들이 전화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성경의 어떤 내용에 회의적이라면 그들은 당신을 비판적인 학자라고 부릅니다. 당신이 성경의 어떤 내용을 옹호한다면 그들은 마치 비판적인 학자가 아닌 다른 일인 것처럼 변증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과, 변호는 자신의 입장을 변호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에 대해 회의적인 학자들은 어떤 입장, 즉 그것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내가 더 명예로운 입장을 옹호한다면 그렇게 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연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다. 나는 비슷한 그리스-로마 문학을 다루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사도행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른 모든 보수 학자들이 내리는 것과 동일한 결론에 반드시 도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비판적인 학자이기 때문에 서로 동일한 결론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증거를 보고 그것이 어디를 가리키는지 봅니다. 그리고 회의론자들도 항상 서로 동일한 결론에 도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그들이 비판적인 학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단지 때때로 사람들이 실제로 그다지 공평하지 않은 토론의 틀을 잡는 방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럼 제가 어떤 입장을 옹호해야 할까요? 예, 하지만 조사를 마치고 해당 입장에 대한 결론을 내린 후에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사과자인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많은 회의적인 학자들과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는 좋은 학자이자 좋은 기독교인이 되려고 노력할 뿐이지만, 그 둘이 갈등을 겪는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회심하기 전에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증거는 항상 저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로 향하게 했습니다.

어쨌든 17장 18절입니다. 여기서 바울에 대해 말한 것처럼 이방 신들을 숭배하기 시작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내 말은, 그는 이미 16장 20절과 21절에서 로마 관습에 맞지 않는 유대 관습을 선포한다고 했습니다.

17장과 7절에서 카이사르 외에 다른 왕에 대해 이야기했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음, 여기 1718년에 사람들은 그가 외국 신들을 숭배하기 시작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활발한 토론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교육받은 철학자들입니다. 아직은 그다지 법적 혐의는 아니지만 잠재적으로 위험한 혐의였습니다. 요세푸스에 따르면 기원전 5세기 아테네의 한 여사제는 그러한 혐의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특히 소크라테스에 대한 암시이다. 소크라테스에 대한 주된 비난은 그가 새로운 외국 신들을 설교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고대 문학 곳곳에서 그런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의 주요 공의회인 아레오바고 앞으로 끌려갔습니다. 다음 구절에서 바울은 그 앞에서 끌려갈 것입니다. 따라서 누가는

바울을 새로운 소크라테스처럼 묘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시다시피 아테네인 여러분은 소크라테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바울이 가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은 대개 그를 선지자의 옷을 입고 말하고 최고의 선지자이신 예수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특히 소크라테스에 대한 암시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사도행전 12장에서 교회를 희생시킨 것처럼 이 철학자들을 희생하여 재미를 느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철학자들의 지능이나 지능, 그리고 그것이 중요한 부분을 비웃는 일종의 농담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관한 진리라고 말해야 합니다. 왜냐면 이 남자는 정자 라고 하거든요 .

그것은 말 그대로 시장 주변에서 곡식을 쪼아먹는 새들을 의미하는 용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장에서 잡동사니를 찾는 남성들에게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 Lake와 Cadbury가 지적했듯이, 마침내 그것은 무가치한 사람들에게 적용되었습니다.

실제로는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것을 인용할 수 있고 저것을 인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아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알다시피, 바울은 철학자들이 각자의 학파에서 얻을 수 있는 지식, 인용, 철학의 범위를 갖지 못할 것입니다. Stoics는 서로에 대한 비판을 제외하고는 Epicureans에 대해 많은 것을 알지 못하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들 중 일부는 이것이 정자 이고 그가 외국 신을 소개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글썄, 바울의 청중에는 그가 시장 내에서 대화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의 사람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그리고 외국 신들을 소개하려는 생각에서 그들이 복수형을 사용한다는 점에 주목하세요.

바울이 그들에게 전파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는 예수와 아나스타시스라고 말합니다. 아나스타시스는 부활이라는 뜻이지만 그리스어로 여성의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 좋아요, 그는 이런 사람들 중 하나입니다. 그는 남성 신들을 하나로 섞고 여성 신들을 다른 신으로 섞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말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비록 그가 그들을 위해 상황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더라도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거만해지려고 하지만 요점을 놓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기독교나 진정한 기독교를 이해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 본문도 이해하지 못하지만 기꺼이 조롱합니다. 하지만 아마도 모두가 똑같이 폴을 조롱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의 말을 더 듣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3장 6절에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결국 청중들을 분열시키고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바리새인들을 잡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람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는 단지 부활을 설교하고 있을 뿐입니다.

만일 천사나 영이 그에게 말하였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내 말은, 우리는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분이 천사나 영이시며 부활에 관해 말씀하셨다는 것은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거기서 갑니다. 음, 폴이 법정에서 끌려갈 때 청중도 약간 분열될 것입니다.

에피쿠로스(Epicureans), 18절. 에피쿠로스(Epicureans)는 신이 없다고 말하거나, 더 자주 감각과 자연을 통해 알려진 신들만 말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신들과 접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래된 신화에 반대했고, 신에 관해서는 둘 이상의 신을 허용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이신론과 매우 유사했습니다. 그들에게 삶의 목적은 즐거움이었습니다. 글썄요, 우리는 즐거움이 좋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그것을 좋은 것으로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의미하는 쾌락은 반대자들이 말하는 쾌락과는 달리, 그들 자신의 글이 증명하는 바와 같이 관능의 쾌락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몸에 고통이 없고 트러블이 없음을 의미한 것입니다.

영혼에. 그러므로 그들은 죽음을 나쁜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그들의 견해에 따르면, 죽음에는 더 이상 육체에 고통이 없고 영혼에 더 이상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교육받은 상류층에서만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들은 1세기에 일부가 쇠퇴했기 때문에 예전만큼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테네에는 네 개의 주요 사상 학파가 있었습니다.

2세기에든 여전히 에피쿠로스학파, 스토아학파, 플라톤주의파, 회의론자들이 있습니다. 글썄, 그들은 Peripatetic 학파인 Aristotelians와 관련이 있으므로 아마도 Peripatetics가 더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특히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학파입니다.

이 시기에 스토아학파는 플라톤주의자들보다 훨씬 더 인기가 많았고, 이후 몇 세기 동안 스토아학파보다 더 많이 유행했습니다. 스토아학파 17장 18절입니다. Stoics는 Epicureans를 비판했지만 학교가 서로 어느 정도 차용했기 때문에 차이점이 예전만큼 크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이 아테네에 있기 전에 있을 이 공의회에 참석했던 당시에 살아 있던 로마 스토아 학파인 세네카. Seneca는 Epicurus를 칭찬하지만 Lucilius에게 Epicureanism을 떠나도록 초대합니다. 글썄, 당신의 원래 창립자인 그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당신의 학교에 의해 왜곡되었습니다. 당신은 와서 우리 Stoics에 합류해야 하며 그는 그들과 대화합니다.

스토아학파는 에피쿠로스학파보다 사람들에게 더 인기가 있었습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이 사두개파보다 사람들에게 더 인기가 있었던 것처럼, 스토아학파는 적어도 공개적으로는 더 많은 신앙에 관해 일반 사람들과 더 많은 의견을 일치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들 중 일부는 냉소주의에 더 가깝고 우리는 Juvenal과 다른 곳의 Diogenes Laertius에서 그것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스토아 학파는 잠시 후에 스토아 학파와 제도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우선 그들은 쾌락을 최고의 이상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미덕을 최고의 이상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쾌락을 악덕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의 우주론은 두 가지 힘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퓨시스 (자연) 가 있었습니다. 로고는 자연에 작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자연을 우리가 보는 패턴으로 조직화하는 이성의 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중 일부는 만약 당신이 자연을 보고 그것이 설계되었다는 것을 믿을 수 없고 최고의 신, 로고, 운명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면 당신은 정말 무지한 것이 틀림없다고 말했습니다. 스토아학파는 기독교와 유사한 평등 윤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일단 그들이 설립의 일부가 되자 전복되었고, 그들은 꽤 빨리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2세기 후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스토아학파 사상가인 황제입니다.

그들은 아리스토텔레스 시대부터 가정법에 엄격했습니다. 가구 코드. 아리스토텔레스는 남자 가장이 아내와 자녀, 노예를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에 대한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그것을 선택하고 발전시켰지만 그들이 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남편에게 아내를 다스릴 방법을 말하는 대신에 바울은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말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합니다. 그는 또한 5장 21절의 맥락에서 신자들이 서로 복종한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지금은 그게 내가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간단히 말하자면, 바울은 자신의 글에서 금욕주의 사상을 자주 사용합니다.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자연의 신적 설계 사상은 스토아 사상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것은 이미 유대교를 통해 받아들여지고 적응되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이용하여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나는 우리가 자연에 대해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으며, 특정한 입장을 취하지 않고도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훨씬 더 많이 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내가 이 모든 일, 이런 일에 개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교수님께 맡겨야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디자인이 어떻게 표현되는지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취하지 않고 이것은 역사 전반에 걸쳐 기독교인들이 주장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능이 있으시고 창조주이십니다. 따라서 세부 사항에 대한 입장을 취하지 않고도 최소한 우리는 하나님 정말 똑똑하시며 모든 것을 정말 멋진 방식으로 설계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Stoics는 자연에서 그것을 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에피쿠로스주의자들보다 유대인과 기독교인들과 좀 더 공통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섭리를 믿었습니다. 그들은 신성한 본성이 세상에 역사한다고 믿었습니다.

한때 그들은 범신론자였지만 이제는 하나의 최고 신에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이 모든 다른 신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신들은 아주 자주, 매 수천년마다 세계가 저절로 무너지고 우주의 큰 화재로 불타버릴 원시의 불 속에서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나 최고의 운명, 즉 로고스는 세계를 다시 재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빅뱅형 우주가 아닌 순환적 우주를 믿었습니다. 어쨌든 바울을 아레오바고로 데리고 가세요. 글썄요, 아테네에서 바울의 청중은 철학자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아테네의 많은 사람들이 철학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아테네의 교육받은 사람들 중 상당수는 그럴 것입니다. 이 철학자들은 그를 아레오바고로 데려갔습니다. 이곳은 아테네의 고등법원이었습니다.

회원이 100명쯤 되어서 꽤 좋은 청중을 확보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공개적으로 모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아고라의 Stoa Basilikos 에서 만났을 것입니다.

따라서 Paul은 어딘가로 이동할 필요가 없으며 문자 그대로 화성 언덕으로 이동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시기에 의회 자체는 아레오파고스(Areopagus)라고

불렀지만, 그들은 더 이상 양자리의 언덕인 화성 언덕에서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 가기 위해 멀리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그를 아레오바고로 데려갔을까요? 마치, 이 사람은 정말 좋은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잠시 쉬면서 들어보세요. 아레오파고스는 아테네의 최고 법원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들은 평가 목적으로 그를 그곳으로 데려가는 것 같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아테네나 어떤 고대 도시에 가게를 차리고 가르치려고 한다면, 당신이 그곳에서 강사로 자리를 잡고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따르게 된다면, 글썄요, 당신은 원할 것입니다. 시의회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먼저 큰 모임을 소집하고 '좋아, 내가 연설을 하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연설을 좋아한다면 학교를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당신의 연설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다른 도시에서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들은 이 사람이 발언을 허용할지 여부를 확인하는 법원 기능뿐만 아니라 교육위원회와 같은 기능도 수행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기간 동안 실제로 그곳에서 처형될 위험에 직면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긴장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도시 지역에 있는 디아스포라의 모든 사람들, 적어도 사도행전을 따를 만큼 충분히 교육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크라테스. 그리고 모두는 소크라테스가 아레오바고 앞에서 재판을 받고 유죄판결을 받고 처형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는 이 시점에서 소크라테스가 옳았고 아레오파고스가 틀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현재 아레오파고스의 모든 사람들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권고 합니다. 권고 사항이나 프로옴은 일반적으로 청중에게 버터를 바르는 연설의 서문이었습니다. 청중을 칭찬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말할 때, 나는 당신들이 얼마나 종교적인지 압니다. 때로는 그것이 미신적인 것으로 번역됩니다. 그 단어는 잠재적으로 모호할 수 있지만 그는 아마도 그들을 모욕하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시작하기에 좋은 방법이 아닐 것이고 그는 연설을 끝내지도 못할 것입니다. 대신에, 아마도 그는 그들이 긍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들에게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내 말은, 당신은 대개 긍정적인 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종교가 거짓이라면, 적어도 그 사람이 자신이 믿는 바에 헌신하고 있다는 사실은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용어가 모호합니다.

이는 바울이 그들의 믿음을 확증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루크의 청중은 이 말을 들으면서 아마도 반대편에서 듣게 될 것입니다. 네, 이건 일종의 미신이에요.

하지만 그는 먼저 청중과 공통점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좋은 방법이죠, 그렇죠? 23절에서 그는 알지 못하는 하나님에 관해 그들에게 말합니다. 글썄, 거기에는 알려지지 않은 신들의 제단이 모두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는 이 알려지지 않은 신에 관해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는 알려지지 않은 신들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은 신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알려지지 않은 신이 어떻게 처음으로 알려지지 않은 신으로 확인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도 여기서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세기 전에 아테네에 전염병이 있었고 그들은 그들이 아는 모든 신을 희생했지만 그들 중 누구도 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들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물을 드리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동물들이 앓아 쉬기 위해 앓는 곳마다 일부 동물들을 풀어 놓았습니다. 사무엘상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짐승들이 앓는 곳에는 알지 못하는 신들, 알지 못하는 신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단은 바울 시대에도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공공 사업을 찬양하고 지역 기념물을 찬양하는 고대 연설의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전히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알려지지 않은 신,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이 신에 관해 말할 것입니다. 글썬요, 사람들을 무식하다고 부르려면, 그들이 모르는 뭔가가 있다고 말하세요. agnoeo, 적어도 좋은 방식으로 말할 수는 있습니다. Paul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모르는 것이 있다는 말을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우고 듣고 싶어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테네는 그것으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이 알려지지 않은 신에 대해 알리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할 것입니다.

17, 24, 25장에서 그는 하나님의 자급하심을 말합니다. 앞서 신들을 혼합하는, 신을 향한 철학적 경향에 대해 언급했는데, 그들이 다른 신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동화시키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때때로 하나님을 최고의 신으로 제우스라고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렇게까지 가지 않고, 다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그렇게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식별에 있어서 그 정도까지 갈 것입니다. 내 생각엔 폴이 그렇게 하지 않은 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스토아학파는 신이 우주에 스며들었다고 믿었고, 신이나 로고, 운명이 실제로 우주라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초기 스토아학파는 이 시기보다 더 범신론적인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성전에 전혀 국한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글썬요, 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을 겁니다. 내 말은, 결국 그는 스티븐이 그것에 대해 설교하는 것을 들었죠, 그렇죠? 스테반의 순교로 인해 몇 가지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항상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상황이 우리에게 매우 안 좋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내 말은, 여기 위대한 복음 신학자가 있는데 우리는 그가 죽으면 그 비전도 죽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박해로 인해 교회가 흩어지면서 그 비전은 배가되었고, 그가 실제로 표현한 신학에 대해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씨가 뿌려졌고 나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거두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을 때 어느 정도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미 스티븐의 연설을 들었습니다. 그는 이미 지역화되지 않은 비전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표면으로 나타납니다.

이사야 66장 1절, 하늘은 그의 보좌요 땅은 그의 발등상이므로 손으로 지은 것이 필요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스토아학파도 이에 동의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다시 공통 기반을 확립하고 있으며 다른 사상가 중 일부도 이에 동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매우 대담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어디를 보든, 주위를 둘러보면서 바울이 손짓을 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성전이 필요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는 *pros deo mai* (25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실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 철학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신은 앞선 분이었어 데이스 . 그리스 철학과 디아스포라 유대교에서 다시 아리스테아 의 편지 , 3대 마카베오서, 필로 및 기타 디아스포라 유대인 자료에서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스토아 학파에 동의했습니다.

다시 한번 공통점. 바울은 그것을 믿었고, 성경은 그것을 가르쳤으며, 또한 스토아 학파와도 일치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공통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더 많은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에 도달하기 전에 그들이 그의 말을 들을 것이 더 많습니다. 이는 다시 상황화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상황화는 우리가 그것을 더 적절하고 더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것을 의미하지만 항상 더 동의하기 쉬운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더 이해하기 쉬워지면 사람들이 더 동의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실제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더 잘 이해했을 뿐입니다. 26-29절에서 그는 여전히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우리, 인류, 희생 등을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인류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26절부터 29절). 유대인과 그리스인 모두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식하거나 어떤 경우에는 신을 창조주로 인식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국가의 경계가 주기적으로 변경되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0장의 경계, 즉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목록은 창세기 10장을 누가 시대의 언어로 업데이트한 것처럼 거의 읽혀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국가의 경계를 나누셨고 역사의 서사시도 나누셨습니다. 스토아학파는 순환적 우주에 대해 말했고 그런 식으로 서사시를 보며 원시의 불 속으로 돌아가고 모든 것을 주기적으로 다시 불 속으로 녹이는 방식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개념은 구약에서처럼 하나님이 국가의 경계와 역사의 서사시를 관리하시는 것과 더 비슷합니다. 그러나 철학자들은 이에 동의했을 것이다. 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도 그는 관련을 맺고, 맥락을 파악하고, 청중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할 만큼 청중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는 철학자로 훈련받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그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그리스인은 둘 다 지고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할 것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평소에 자신이 하나님 백성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아버지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인과 매우 자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창조 덕분에 하나님을 세상의 아버지로 말했거나 그리스인에게는 창조로 인해 제우스가 세상의 아버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글쎄요,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주이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약에서 그는 그의 백성의 아버지이고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는 말라기에서 한번 사용한 것처럼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조 덕분에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다른 곳에서도 가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다른 것과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다른 각도를 제공하는 것일 뿐 친밀감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그에게 우리의 존재를 빚지고 있습니다. 28절에서 그는 그리스 시인의 말을 인용합니다. 비록 이 구절은 그리스 시인의 꽤 잘 알려진 시이고, 우리가 아는 한 바울은 그 시를 유대인 변증학 매뉴얼에서 따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은 인용문 모음으로 수집되었으므로 그리스어 속담에 대한 최소한의 훈련만으로도 이에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용문은 적절하게 선택되었습니다. 호머와 다른 시인들은 호머가 가장 유명하고 가장 자주 인용되었지만 유대인들이 성경을 인용하는 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증거 텍스트로 인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회당에서 설교할 때 성경을 인용합니다. 그러나 그는 성경을 인용하는 것만큼 많지는 않지만 시인들을 인용합니다. 그러나 그는 호머를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그를 불렀던 신성한 플라톤을 인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분명히 Epimenides 와 Aratus를 인용합니다.

당신 안에서 우리가 살고, 움직이고, 존재한다는 노선은 에피메니데스 에 기인합니다. 음, 흥미롭습니다. 디도서 1장과 12절, 에피메니데스가 인용된 신약성서의 다른 곳 중 하나가 거기에 있습니다. 바울이 쓴 편지에서 에피메니데스는 크레타 출신이었고, 그가 크레타 사람들 중 하나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것은 티투스 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다음 속담, 첫 번째 속담에서 우리는 당신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합니다. 그것은 에피메니데스 의 말입니다. 실제로 에피메니데스 는 이야기에 따르면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신들을 위한 제단을 쌓도록 조언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그 맥락에서 아테네에서 그가 미지의 신에 대해

말할 때 에피메니데스를 인용하고 그의 청중이 '오, 이것은 에피메니데스 와 연관되어 있다'고 인식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

그런데 에피메니데스 역시 수년 동안 매우 긴 낮잠을 잤다고 합니다. 따라서 워싱턴 어빙(Washington Irving)의 립 밴 윙클(Rip Van Winkle)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고 그것이 미국의 독창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다면, 글썄요, 그가 직접 쓴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리스 신화에 선례가 있었고 실제로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역사상에도. 하지만 어쨌든 그것은 허구의 이야기이다.

에피메니데스와의 연관성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또 다른 인용문을 제시합니다. 이것은 인용문이며 우리도 그의 후손입니다.

이 인용문은 일반적으로 Aratus의 것으로 간주됩니다. 아라투스(Aratus)는 킬리키아(Cilicia)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폴은 어디서 왔나요? 따라서 바울이 실제로 아라토스의 내용을 인용했다는 것은 이치에 맞습니다.

시인의 사용은 변증에 대한 유용한 증거 텍스트로 구성된 디아스포라 유대인 선집에도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그가 임마누엘에게서 그것을 얻었을 수도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인이 너무 신화적이라고 비판합니다.

철학자 중에는 그런 말이 많이 있습니다. 스토아학파는 그것을 우화합니다. 음, 제우스는 여자와 남자를 강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다른 미덕 등과 짝을 이루는 미덕이었습니다. 그리고 플라톤주의자들은 실제로 후기 시기에 그것을 아주 멀리까지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시인의 표현을 매우 자유롭게 사용합니다.

글썄요, 폴이 자신의 문화와 접촉하는 데 매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세요. 저는 가능한 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음, 확실히 여러분은 자신의 상황에 따라 나보다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어떻게 복음을 우리의 상황에 적절하게 만들 수

있는지, 그러면서도 복음을 타협하지 않고 변경하지 않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하고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것은 좋은 선교학적 원리이다. 이는 대화를 위한 좋은 원칙입니다. 사람에게도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좋은 원칙입니다.

하지만 풀이 어떤 편을 택한다는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그에게 동의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에피쿠로스주의자들은 신전이 필요 없다는 점, 그리고 그가 계속해서 말하려는 것, 조각상이 필요 없다는 점에 동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말한 이 모든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그는 믿기 때문입니다. 역사 속에서 행동하시는 섭리의 하나님 안에서. 29절을 보면, 대부분의 철학자들은 신상 자체가 신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일부는 이 신상을 신을 생각나게 하고 신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기억 보조물로 여겼습니다.

우리는 인간을 묘사하는 기독교 미술 전통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신이 신이라는 것을 인식합니다. 그에 대해 그릴 수 있는 그림이 없습니다. 일종의 기억 보조 도구를 사용하여 하나님을 가리키는 전통이 있지만, 기독교인들은 우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유대 전통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철학자들은 그들을 항상 우상으로 이해하지는 않았습니다. 때때로 그들은 그것들을 기억 보조 도구로 여겼는데, 그것은 기독교인들이 신을 위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적어도 신에 대한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그의 모습을 묘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1730년, 그는 그들의 무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아직까지 세상의 무지 때문에 세상을 그렇게 많이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글썄, 우리가 3:17에서 본 것처럼, 무지는 과실을 감소시킵니다.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죄를 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덜하며, 하나님께서는 그 점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주인의 뜻을 알고도 불순종하면 매를 많이 맞고, 주인의 뜻을 모르면 매를 적게 맞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쨌든 17:23은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에 대해 말했습니다. 글썬요, 그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은 이전에 그들이 알지 못했던 이 하나님을 그들에게 나타내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지하다고 생각되기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의 언어는 다소 강력하지만 점점 더 강해질 예정입니다. 자, 그들이 소크라테스처럼 되고 싶다면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 나는 아주 무지합니다.

아시다시피, 오라클은 제가 가장 현명한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저는 매우 무지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뭔가를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울이 자신들이 몰랐던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준 것을 감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30절과 31절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마침내 공통점을 넘어서서 복음이 실제로 사람들에게 하라고 요구하는 일을 하라고 그들을 불러야 합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글썬요, 그것은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아이디어였지만 대부분의 그리스인들이 높이 평가할 아이디어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철학으로의 개종 아이디어를 받아들였습니다. 철학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그가 말하는 회개는 다른 신들을 부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타협할 수 없는 한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가 언급하려는 내용을 포함하여 이에 동의하지 않는 시스템의 모든 항목은 거부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세상을 심판하겠다고 말합니다.

글썬요, 아시다시피 많은 그리스인들은 사후 세계의 심판을 믿었지만 미래의 시간, 즉 신이 세상을 심판할 구체적인 순간을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우주적 화재를 믿었던 스토아학파에게도 그것은 주기적이었다. 그들은 주님의 날, 즉

엄청난 변화가 있을 이 시간으로 나아가는 선형적 역사관 같은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정한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며 모든 사람에게 증거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심으로 증거를 주셨느니라

아니, 그때 그는 그것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타협할 수 없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바울은 단지 관념일 뿐인 이론적 신, 감정이 없고 접근할 수 없는 플라톤주의자들의 신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않았습니니다. 단, 그는 순수한 마음, 순수한 지성이었기 때문에 마음으로 그에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니다. 그는 성경의 하나님에 관해 말하고 있었습니니다. 그는 일부 그리스 철학자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실제 역사에서 행동하신 하나님, 단지 명상을 통해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다가가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있었습니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니다. 그리스인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마치 시체가 무덤에서 나오는 것과 같았습니니다. 그것은 그다지 매력적인 개념이 아니었고, 어쩌면 화장한 시체가 스스로 재구성되어 다시 돌아올 수도 있었습니니다.

그것은 심지어 무서운 생각이었습니니다. 바울은 죽고 부활한 신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지 확실히 그렇지는 않습니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매년 계절에 맞는 초목을 가지고 돌아왔기 때문입니니다. 봄이 되면 그들은 다시 돌아오곤 했는데, 그것은 애초에 육체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 들에 의해 일반적인 유대인 신앙으로 널리 발전되었습니니다. 또한 믿지 않았습니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 충만한 생명이 육체적 생명이라는 것이 사실임을 보여 주셨습니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 철학자들 중 일부는 음, 가장 좋은 것은 소마 세마(soma sema)가 이 몸에서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덤이에요.

소마, 곧 몸은 무덤이자 세마 이다. 많은 그리스 사상가들, 다양한 견해가 있었지만 많은 그리스 사상가들은 몸을 벗어나면 가벼운 영혼이 이 무거운 몸에 눌러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불이나 공기로 이루어진 더 가벼운 원소였고, 순수한 하늘까지 떠오를 것이었다.

그러나 성경적 세계관에서는 존재는 육체적 존재이다. 그 사이에 사후세계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존재는 육체적 존재이다.

창작이 좋습니다. 창조는 새로워질 것이다. 새로운 창조가 있을 것이며, 육신이 부활할 것이며, 우리는 육신의 존재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후서 5장,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몸과는 다릅니다. 내 말은, 예수님의 부활 몸에 차이가 있었던 것처럼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상병입니다.

세상은 실제 장소입니다. 세상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에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배고픈 사람들을 걱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아픈 것에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 세계입니다.

그리고 일부 세계관에서처럼 악과 고통은 우리의 상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일이고 우리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바로잡힐 때가 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 사상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에피쿠로스 사상과 맞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스토아학파의 생각에도 맞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왜 이것을 끝까지 아껴두는가? 글썄, 그가 말할 때마다 그게 끝이니까. 그들은 나머지 기간 동안 그의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Paul은 왜 이것들을

완전히 버릴 수 없습니까? 왜냐하면 그가 그들을 완전히 배제한다면 우리는 공통점을 찾고 있지만 그는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년 전에 나에게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의 믿음에 있어서 예수님은 위대한 선지자이자 위대한 교사였습니다. 글썄, 우리는 처음부터 공통점이 많았습니다. 그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습니다.

글썄, 시작해야 할 근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공통점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이시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오, 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의 전통에 따르면 그들은 그렇게 믿습니다. 공통점이 많았어요.

내가 말하였거니와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 곧 약속된 부활을 믿습니다. 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내가 말했고, 우리는 예수께서 실제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믿습니다.

아니요, 그의 전통에 따르면 그들은 예수가 죽었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할 수 있는 공통점이 많습니다. 그는 동정녀 탄생을 믿었고 기적을 믿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면 꼭 그렇게 하세요. 내 말은, Paul이 여기서 일했던 것보다 거기에는 더 많은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통점을 찾으려면 이를 활용하세요.

그리고 예의 바르고 은혜롭게 대하십시오. 하지만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다른 것, 즉 우리 신앙의 핵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생에 대한 우리의 소망입니다. 32-34절. 아테네에서 바울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 아시다시피, 그는 그 후에 고린도까지 갔습니다.

고린도전서는 “내가 아테네에 갔다가 고린도에 가서 너희에게 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있었습니다. 글쎄, 그들은 바울이 그렇게 한 이유는 아테네에서 상황이 너무 나빠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당신이 얼마나 나쁜 연설가였는지 말함으로써 기대치를 낮추는 것은 일반적인 수사적 장치였습니다. 2세기 초 황금입의 웅변가인 디오 크리소스톰(Dio Chrysostom)은 연설에서 자주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는 내가 말을 잘 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웅변으로 그를 날려버릴 것입니다. 자, 폴, 만약 여러분이 그의 편지를 읽고 고대 수사학을 공부한다면, 폴은 꽤 훌륭했습니다. 내 말은, 대부분의 수사학자들은 그들의 편지에 수사학을 포함시키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그들은 논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서신에는 고대 수사학의 표준에 비하면 특이한 수사학적 장치가 적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바울의 편지도 읽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그가 훌륭한 연설가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고린도후서 11장. 그러나 그것은 그의 논증의 성격이나 그의 논리의 성격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훌륭한 연설가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다른 요소도 있었습니다.

옷을 어떻게 입는지, 몸단장을 어떻게 하는지, 몸짓까지. 그리고 아마도 Paul의 경우에 훨씬 더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아마도 Paul의 경우에 관련이 있는 유일한 것은 그들의 억양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아테네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고린도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순수한 다락방 악센트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비록 그가 그리스어를 말하기 시작할 때 사도행전 21장에서 킬리아크가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더 잘 발전한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당신은 사람들을 광야로 인도한 이집트 사람이 아니군요? 이집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어를 사용했습니다. 이집트의 유대인들은 확실히 그리스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에게해에서 온 사람, 특히 아테네나 코린트 같은 곳에서 온 사람처럼 그리스어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Kiliarch 는 그리스인 자신입니다. 그의 이름은 리시아스입니다.

그래서 그는 바울이 쓴 그리스어의 질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가 그리스어를 전혀 할 수 있을 만큼은 아니지만 그 수준은 뛰어납니다. 그러므로 어쨌든 바울은 세계 최고의 연설가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내가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전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말하는 것은 그가 고린도 사람들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바울은 그들에게 십자가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는 고린도전서와 후서에서 이 일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십자가를 설교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가 맥락화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편지를 통해 고린도인들에게 그 일을 합니다.

심지어 그의 수사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수사적 장치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아테네에서 바울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누가는 그곳의 개종자 가운데 아레오바고 사람도 있었다고 알려 줍니다. 글썄요, 아레오바고에는 약 100명의 회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는 그곳에서 짧은 설교를 하면서 시의회 의원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일이어야 합니다. 당신이 시의회 의원이라면, 시의회 의원에 반대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설교에서 그가 전하는 내용과 문화적으로 너무 다른 사람들에게 그 중 한 사람이 신자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임하셨음에 틀림없습니다. 그의 이름은 디오니소스(Dionysius)이며, 후기 전승에 따르면 그는 아테네의 첫 번째 주교가 되었습니다. 데마루스.

이 여자가 왜 거기서 나와? 특히 아테네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그녀는 아마도 시의회 의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철학자에게는 여성 제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스토아 철학자 또는 에피쿠로스 철학자 중 한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군중이 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테네에서는 전통적으로 여성이 가장 제한되는 곳 중 하나였습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그녀는 상류층 여성일 것이다. 전통적인 아테네에서는 일반적으로 상류층과 함께 공개적으로 활동하는 유일한 여성은 상류층 매춘부인 헤테리(heteri)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특히 바울이 이 메시지를 전할 때 그 자리에 있었을 사람들 중에서 바울이 설교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고려하면, 그녀는 철학자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제 이것은 아마도 좋은 것처럼 보였고 나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내 말은, 그들 중 일부는 그를 조롱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당신으로부터 더 많은 소식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4장과 같이 다른 곳에서는 분열된 반응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도행전에는 종종 분열된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문제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자가 되었는데, 바로 그런 일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후에 바울은 더 남쪽에 있는 다음 도시로 이동하는데, 그 도시는 고린도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18장일 거예요.

사도행전 전체를 똑같이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겠지만, 아가야의 수도인 고린도에 대해 몇 가지 세부 사항을 다루겠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싶다면 완료하세요. 그 이상으로 넘어가면서 다른 부분도 요약하겠습니다. 나는 4권짜리 사도행전 해설에 엄청난 세부 사항을 갖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에 접근할 수 없을 것입니다.

100페이지 분량의 요약으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고대 자료를 읽지 않고는 혼자서는 얻을 수 없는 배경 자료는 2014년에 나온 개정판인 나의 배경 해설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문화적 배경 연구용 성경은 존더반(Zondervan)에서 출판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사도행전과 신약성서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주석을 썼습니다. 음, 신약성서의 대부분의 주석은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해설에는 배경 자료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부 사항을 원하면 거기에 있지만 원할 경우 배경에 대해 실제로 많은 세부 사항을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린도전서에 대한 좋은 배경을 제공하는 사도행전 18장의 시작 부분으로 들어가면서 이를 설명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많은 고린도전서 주석과 다른 연구들이 있습니다. 나는 고린도에 관한 논문을 작성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들 중 일부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에 관해 쓰여진 논문은 너무 많지만 고린도의 고고학적 증거와 고린도에서 출판된 비문의 양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수업부터 그 샘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을 가르칠 때 Dr. Craig Keener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8회입니다.